

군산 시간여행마을, 관광객들 북적

봄 여행주간 14일 동안 10만여명 방문

군산시는 봄 여행주간(4월 29일~5월 14일) 동안 10만여명의 관광객이 시간여행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간여행마을'은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근대역사문화지구 일대를 통일하여 명명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사용되고 있다.

근대역사박물관, 초원사진관, 히로쓰가옥 등을 중심으로 한 시간여행마을은 젊은 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주요 인기 관광 명소가 되었다.

특히 초원사진관 일원에서 매주 펼쳐지는 근대복장 미션이벤트, 스탬프투어, 버스킹 공연 등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기고 싶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100여개 음식점, 40여개 숙박업소에서 여행주간동안 다양한



군산시에는 봄 여행주간(4월 29일~5월 14일) 동안 10만여명의 관광객이 군산 시간여행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에 나섰다.

이번 봄 여행주간 동안 시간여행마을 인근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는 빈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 이제 군산도 스키장은 관광지가 아닌 머물러 가고 싶은 관광지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봄 여행주간 동안 시간여행마을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행주간 뿐 아니라 연중 이벤트와 즐길거리로 가득찬 관광 콘텐츠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주민 한마당축제' 개최

행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2일 지역주민 1,000여명을 초청, 주공4단지과 5단지내 어울음원에서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 제17회 주민한마당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음식나눔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하와 효자, 효부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주민을 위한 봉사상 등을 시상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숨은 끼를 발산하는 장기자랑 및 문화공연을 마련해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도 펼쳐져 축제를 찾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군산시가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시내 곳곳의 전광판과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라는 문구를 송출하고 게시관에 홍보물을 부착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칙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서천 동백대교 7월 부분개통 예정

시, 마무리 점검 나서 물류비 절감·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대 효과 기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군산과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오는 7월 부분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는 지난 12일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등 20여명이 10여년 만에 이룬 결실의 현장인 동백대교를 찾아 개통에 따른 대책 등 마무리 점검에 나섰다.

길이 3.185km에 폭 20m, 국비 2,372억원이 투입돼 완공되는 동백대교는 왕복 4차로 규모로 지역간 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아치교량 부분 경관조명 설치로 관광객 증대 등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문동신 시장은 "동백대교 개통이 군산과 서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 자원을 공유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군산과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 조감도

원전전략을 잘 세우라"고 주문했다.

시는 동백대교 주변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 외관을 정비토록 계도하고 교통 혼잡 대책 등 차질 없는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날 월명산 전망대

를 찾아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360도 전망 포인트를 갖고 있는 전망대가 서해낙조와 동백대교 등을 배경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시간여행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군산=김판곤 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대학생 봉사단 2기 발대식 가져

코레일 전북본부는 지난 12일 익산역 회의실에서 '코레일 전북본부 대학생 봉사단 2기' 발대식을 갖고,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활동 아이디어 토론 등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 봉사단은 코레일 전북본부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날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최종 19명을 선발했다.

2기 대학생 봉사단은 연말까지 코레일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봉사단원들에게는 코레일 직원의 멘토링 프로그램, 기관차 시뮬레이션 체험 등 코레일 조직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개최

의원 역량·자질 교육

군산시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청소년 의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를 근대역사박물관 규장각실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어린이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에 이어 이번 실시된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는 올해 한해 동안 '군산시 청소년 의회'를 이끌어 갈 참여자들이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여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교육은 총 4개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민주주의의 이해, 지방 의회의 운영, 청소년 의회의 역할과 사례, 청소년 참여 활동 등 청소년 의원으로서 앞으로 정책참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

2017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교육, 복지, 안전)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달중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내달부터는 매달 1회씩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 행복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성원 어린이행복과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시정을 구현하고 어린이가 참여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번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는 각계각층 전문가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지난 3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2017년 청소년의회' 의원 30명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의원들은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학교장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구성되었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시, 전기이륜차 지원 신청 선착순 접수

익산시가 지난 12일부터 공해와 소음 없는 친환경 전기이륜차 지원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목표 수량은 57대로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환경부 보급평가 인증을 완료한 6종의 전기이륜차로 차종에 상관없이 대당 250만원을 균등 지원한다.

익산시에 주소가 등록된 일반시민, 법인, 단체 등 전기이륜차 구매를 원하는 일반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구입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제작·판매사·대리점에 구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전기이륜차간보급 유의사항 동의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차량가격은 382만원~645만원으로 보조금 250만원을 받을 경우 대략 132만원~395만원만 부담하면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 중 보급평가 인증을 통과한 차종도 추가로 반영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신승원 녹색환경과장은 "보급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며 "필요한 시민께서는 이번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중앙동, 청사신축 설계 주민설명회 실시

군산시 중앙동주민센터는 지난 11일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운영될 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청사 사무실, 수감실 등의 배치구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중앙동주민센터 및 건축사무소 건축무한 주축로 개최되었으며 나동문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익산=장양원 기자

의적이고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청사 배치구조, 디자인 등 청사 설계(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청사 신축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와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으로 이어지는 근대문화역사거리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사외관 및 배치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산=장 현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